



“한복 입고 가면

비에날레도, 미술관도, 박물관도

무료로 갈 수 있대요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 가고 싶어요”



을 추석 연휴에는 광주비에날레 등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풍성하다. 사진은 광주비에날레 전시장 모습. <광주일보 자료>

굴렁쇠 굴리고 국악 공연 즐기고 비에날레 관람은 을 추석 ‘덤’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작

MUSICAL
Jack the Ripper
잭더리퍼

19세기말 영국에서 발생한 실제 연쇄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범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숨막히는 스릴러와 그 속에 감춰진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안재욱·유준상·신성우·김범래·김성민·민영기·최민철·소냐 등 최고의 출연진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과 특히 감각적인 뮤지컬 넘버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최진우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화음은 깊은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10월 1일(금) ~ 2일(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금요일 : 20시 / 토요일 : 15시, 19시30분(2일3회)] VIP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062) 220-0541 * 1588-0766 | 인터넷예매 : 티켓마루(www.ticketmaru.co.kr), 인터파크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재)광주공연예술재단 · 주 관 : (재)광주공연예술재단, 공연마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카밀라 10, 12(화) 10, 10(토)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MALSON 10, 5(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클리포 행어 10, 5(화), 10, 6(수) 전남대학교

▲Water Floor/keib 10, 8(금), 10, 9(토) 광주 현빈(구 태평극장 부근)

▲가림과 10, 12(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매베스 10, 12(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떠나는 사람들 10, 14(목) 5.18 기념공원

▲아시아의 합창 10, 10(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고래의 꿈 10, 11(월) 금남로 일대

▲소재의 바이올린 10, 13(수)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아시아공동작업 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 10, 15(금) 빛고을 시민 문화관

▲스름 10, 16(토)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아빠, 제발 화투 좀 그만 치세요. 명절 연휴 집 안에서 TV 만 보지 말고, 모처럼 모인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를 떠나보자. 조금만 주변을 돌아 본다면, 온 가족이 도심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전시와 문화 체험이 많다.

을 추석에는 특히 세계 미술 축제 광주비에날레가 열리고 있고, 부대 전시도 풍성해 볼거리가 많다. 가족, 친지와 함께 전시장과 박물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자.

연휴기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초상화 그려주는 잉여인간 프로젝트

제8회광주비에날레(11월7일까지)는 ‘만인보’를 주제로 광주비에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양동시장 등지에서 31개국 134명의 작가들의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21일~23일)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 입장시키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또 전시작 중 즉석 사진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벽에 부착하여 전시에 동참할 수 있는 프랑코 바카리의 ‘이 벽에 당신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시오’의 1만번 째 참여자에게 광주비에날레 평생 무료 관람권과 경품을 제공한다.

만인보서와 잉여인간 프로젝트 등 평소 주말에만 접할 수 있었던 행사들도 연휴 내내 즐길 수 있다. 21일에는 통기타듀엣, 모던록 밴드의 공연이 준비됐고, 22일은 포크록 밴드, 풍물, 타악, 설장구 공연이 펼쳐진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임인식의 통기타 공연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료로 관람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작업인 잉여인간 프로젝트는 연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도슨트 프로그램, 청소년 감상 교육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입장료 어른 1만4천원. 문의 062-608-4228.

국립광주박물관이 마련한 전통 문화 행사 체험은 명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18~23일까지 매일 광주박물관 일대에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이 펼쳐진다.

웃놀이, 굴렁쇠 굴리기, 고리 던지기, 팽이치기, 사방치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전통 문양 색칠해 보기 등의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또 이 기간 오후 2시에는 ‘오세암’ ‘물란’ ‘아바타’ ‘월-1’ ‘라파꾸이’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23일 오후 5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퓨전 국악 공연이 결연된다.

최근 새단장 한 박물관을 둘러보며 문화재를 관람하며 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

농경문화원은 전국 국립박물관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이는 곳으로 2000여 년 전 썰문화와 복합농경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고려도자실과 조선도자실, 신안해저유물실, 고분실 등은 각각 불교미술, 도자실, 유교문화실, 아시아미술로 볼 만한 것들이 많다.

재개관을 기념해 ‘바람을 부르는 새’(10월24일까지) 특별전도 열리는데, 새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62-570-7061.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추석맞이 민속놀이 한마당’도 무료로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다. 21~23일 민속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줄넘기, 투호놀이, 딱지치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2-613-5365.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한가롭게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휴 보내기다.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디저트’전(11월14일까지)은 지역 젊은 작가들의 특색 위



박물관에선 웃놀이·고리 던지기

아이들을 위한 민속놀이 한마당

는 이색 작품을 선보인다.

강운·권진희·박상화·박설·박정음·신양호·신효원·양문기·유재명·이재길·이정기·이조흥·이호동·조광석·진시영·최제현·황정후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출품작도 다양하다.

또 민주 도시 광주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민주, 인권 그리고 광주’(2011년 2월13일까지)전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한정웅컬렉션 특별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송영욱·박복룡·홍성담씨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이 밖에 ‘복합어·복화술-대만현대미술’전(10월3일까지)은 귀전창(郭振昌), 광홍즈(彭弘智), 장야오황(張耀煌), 리권양(李俊陽) 등 대만 대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도 오는 31일~11월7일 김영하·박동신·박주희·이정성·정삼섭씨가 참여하는 ‘다섯개의 샘’전(11월7일까지)을 연다. 문의 062-613-7141.

아시아 문화마루-콘서트홀레 광주는 화물컨테이너를 이용해 만든 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이색 추억을 선사한다. 이 곳에서는 스위스 출신의 아티스트 그룹 ‘E-Toy’전(11월7일까지)이 열린다. E-Toy 그룹은 90년대 인터넷 문화 개척자로 사회적 이슈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룹으로 1996년 알스 일렉트로니카 펠드 니카를 수상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티로폼 공 16개를 설치한 ‘타마타(TAMARTA) 프로젝트’와 ‘미션 인터네티’, ‘이토이 브루드’, ‘주주카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문의 062-230-0180.

○광복기자 크로h@kwangju.co.kr